

월요광장

‘윈더 리스트’를 찾아서



김선정
2012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나 허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 순응하는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미래 사회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사회가 만든 규칙, 규범 혹은 법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고, 사회 체계에 아무런 의문이나 질문을 하지 않는다. 잘못 이용되고 있는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규범인데, 사회 질서가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법이라는 이름

의 이런 규칙이나 규범, 틀에 사람들이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이 영화나 소설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다른 모습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하고 비슷한 모습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사회에서 이런 틀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을 제공하는 것은 예술가나 사상가들이다. 그들은 사회적 규범에서 이탈하여 다른 선택을 찾는다. 그들은 관습의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여행을 위해서는 가방이 필요하다.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여행가방은 마르셀 뒤샹의 ‘La Boite-en-valise’이다. 1930년대 말,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만들어진 이 작품으로, 뒤샹이 이 시기에 예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휴대용 미술관이다.

뒤샹의 여행가방은 한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자신을 적응해서 가는 방법이 아닌 방향을 선택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들의 방향은 육체적인 방황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정을 보여준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윈더 리스트’ 전시는 문필가, 건축가, 예술가들이 사회적 관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보여주는 전시로, 벨기에 자유대학의 한스 드 울프 교수가 기획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윈더 리스트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윈더 리스트는 사회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해 자신만의 장소를 찾아내려는 내밀한 욕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시에 언더 리스트는 걷기, 여행하기, 이주하기, 새로운 곳을 탐사하기 등과 같은 행위에 갖든 관념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다.”

윈더와 리스트가 합성된 윈더 리스트는 이주와 욕망이라는 독일어가 합성된 단어로이다. 이주나 돌아다니는 것을 즐기는 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윈더 리스트의 개념이 낭만주의 시인과 소설가, 화가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고 사회적 관습에서 탈주하려는 욕망을 드러낸다.

작가들이 관습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벨기에 작자인

프랑스 알리스 맥시코에서 살고 있다. 미국에서 전시에 초대받았을 때 그 맥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간 넘어면 되는 북쪽으로 가는 길 대신에 남쪽으로 출발하여 여러 가지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미국에 다다르는 길을 제안했다.

현대 사회는 효율과 빠름이 모든 결정에 요소인데 반해 작가는 돌아가는 길을 제안하고 있다. 작가의 이런 여정은 작업으로서 그리고 정치적인, 철학적인 제안이다. 마르셀 브로에타스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예술가의 무능을,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고 순응하는 현대 사회의 강요에서 떠나 스스로 만든 낙원안에 은거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술가들은 사회에 순응하는 대신에 사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알아내려 한다. 그리고 사회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자유, 대안적인 삶의 모습을 제안한다.

(참고로 지난 17일 개막한 ‘윈더 리스트’ 전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법조칼럼

‘습관의 힘’은 세상을 바꾸는 힘



김정옥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

1년의 시작을 알리는 1월. 요즘 필자 마음은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도 가득하다. 작심 몇 주 만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몸매에 매이는 나쁜 습관이 슬깃슬깃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얼마 전 의문의 편지 1통을 받았다. 이름이 낯설지 않다. 봉투를 열어보니 예쁜 연하장이 들어있다. 맞춤법이 많이 틀린, 뽀뽀뽀 뽀뽀 뽀뽀의 친애 글씨가 인상적이다. 내용은 내가 3년 전에 기소한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자신은 곧 사회에 복귀할 날이 다가오는데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됐고, 사회에 복귀하면 성실히 일을 하며 살겠다는 내용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기소 내용이 생각이 잘 나지 않아 확인해보니 갖 스무 살이 넘는 나이에 절도·강도·강

간미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옛된 얼굴, 스포츠형 머리스타일, 머리를 꼭 숙이고 말을 잘 하지 못하던 피의자였는데, 범행도 순순히 자백했고, 반성하는 듯 보였다.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고 할머니와 같이 살던 중 집을 나와 이리저리 떠돌면서 생활하다가 돈이 없어서 충동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로는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를 수차례, 그 이후 재차 범행할수록 대담해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조사하던 중 그가 살아온 과정이 매우 불우했음을 알게 됐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주변의 보살핌 또한 받지 못해 사회적 규범은 물론 자신의 충동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 및 방법 등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어려운 이야기로 훈계를 하면 마음에 새기지 않을 것 같다. 나쁘게 행동하는 것은 이미 그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나쁜 행

동이다. 잘못된 일이다”를 아침저녁으로 되뇌어 보라고 권했다. 또 앞으로는 화가 나거나 나쁜 행동을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기면 하나, 둘, 셋을 세면서 눈을 감아보라고도 했다.(필자가 화날 때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피의자에게는 스스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였다.

물론 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지금도 위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몇 번이고 시도했다면 그에게는 작은 변화라도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작은 행동이 습관처럼 나쁜 행동을 일삼았던 그에게 여과장치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각을 이루는 두 번의 1도 차이는 시작점은 같으나 진행할수록 그 간격이 점점 커지듯,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져본다.

공판 검사인 나는 하루에도 수십여 명의 피고인을 만난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챈 사람, 다른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 등등. 물론 한순간의 잘못으로 피고인의 자리까지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은 재범인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의 광범한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을 보며 교통신호를 지키는 습관, 육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 술을 자제하는 습관, 거짓말하지 않는 습관 등 조금만 자신을 들여다보고 부주의하고 나쁜 습관이 발현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했다더라면 저 자리에서 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히 뒤따라겠지만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피고인석에 설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새해는 늘 살아온 하루의 연장선상이지만, 새해를 핑계 삼아 지금까지의 잘못에 스스로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할 수도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의 시작이다.

새해에는 하나쯤은 좋은 습관이 더 생길 수 있도록 조금만 달라져 보자고 되뇌어보자.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습관처럼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행동부터 시작하자.

필자는 이와 같은 개개인의 습관이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콩고 콜탄과 베네수엘라 금

서 아이들까지 동원한 노동 착취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 그리고 환경파괴는 형언할 수가 없다. 이 물질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는 휴대폰 등 핵심전자·의료용기기 회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 탄탈이 직접 매장돼 있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재래식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조를 형성 감바닥의 진흙을 긁어 큰 저수조에 넣어 회전을 시키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무거운 콜탄이 바닥에 침전되면 금속가루로 가공을 해 탄탄륨을 생산한다. 이 물질의 특징은 내구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전도도가 탁월하여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핵심적이다.

지난 가운데 얼마 전 남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1970년대 국제 금값은 1온스(28.35g)당 37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최근에는 1온스당 17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금값 폭등이 부른 아마존 원주민 야노마미족 80여 명이 대량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다량의 금맥이 추정돼 불법 금 채굴업자인 ‘가립페이루’와의 생존 구역 확보를 놓고 갈등과 영역을 침범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금을 추출하기 위해 연간 30톤 이상 사용하

는 수은이다. 이 유해물질이 물속의 각종 플랑크톤과 반응 유기수은화해서 아마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은 당연시된다.

‘푸른 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콜탄은 희귀 재료로서 제련을 거쳐 탄탈이라는 물질을 만들면 특별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귀금속으로 탈바꿈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다. 예를 들면 휴대폰 회로에 전류를 저장했다가 내부에 일정 전류를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 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의 경우도 문명이 파괴되지 않고 자신들의 삶과 금지를 갖고 살아가는 수십 명의 원주민들을 확실까지 하면서 탄생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 할까?

콜탄과 금은 자연스럽게 채취 생산되지 않는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노동착취, 국립공원의 심각한 훼손, 유인원 고릴라의 희생과 코끼리의 죽음이 선행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화품질이 양호하고 휴대폰 자체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가입자 수 50% 이상이 1년 이내에 교체한다고 한다.

큰일이다. 그 이유는 콩고에서 비롯되고 있는 악순환은 더 크게 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등 휴대폰의 가입자 수가 중요시될 수 없으며, 금값 폭등이 관심사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탄생 과정을 반추해 보면 쉽사리 교체하는 휴대폰을 가능한 오래 사용하는 지혜가 동원돼야 할 뿐 아니라 금에 대한 인식도 탈바꿈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송고료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나로호 3차 발사 이번엔 기필코 성공해야

우주강국의 국민적 열원을 담아 10여 년째 공들인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30일 다시 발사대에 선다. 발사를 이틀 앞둔 28일 발사체 조립동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나로호가 발사대에 세워지는 등 마지막 도전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가 발사 예정일인 30일을 이틀 앞둔 28일 발사대 옆에 설치되는 등 성공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은 지난해 11월 두 번째 발사 시도에서 문제가 된 2단(상반)부 전기계통에 대한 수리를 마쳤다.

나로호는 당시 발사 16분여를 앞두고 과전류 문제로 카운트 다운이 중단됐다. 분석 결과, 과전류의 원인은 추력방향제어를 구동하는 유압모터제어기 고장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우연은 유압모터제어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을 했다.

사실, 나로호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발사됐으나 모두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당시 한쪽 패어링이 분리되지 않아 실패했고, 이듬해 2차 발사는 1차 때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통신이 끊기면서 교신이 중단됐다. 이번엔 나로호 성공 발사에 대한 열원이 더욱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국은 지난 24~25일 발사운용 예행 연습을 했고, 28일 본격 발사운용 단계에 들어갔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최종 발사 리허설을 한 뒤 30일 오후 3시55분~7시30분 발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나로호 발사는 우리 발사체로 쓰아올린 최초의 위성이자 세계 10대 우주강국에 진입하는 것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나로호로서 사실상 마지막 어기를 구동하는 유압모터제어기 고장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우연은 유압모터제어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을 했다.

‘출장강’ 통해 해외 갔다온 광주 동구의원

광주시 동구의회와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허위로 출장서류를 작성해 여비를 지급받은 뒤 이를 전·현직 의장 해외 연수비용에 보태는 이른바 ‘출장강’을 한 것이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C의장과 삼반기 의장을 지낸 H의원 등 2명은 지난달 30일 7박8일 일정으로 터키 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한다. 연수비용은 C의장이 269만원(자부담 13만원), H의원은 237만원(“ 51만원)이었다. 구의회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자, 출장서류를 하루도 꾸며 타낸 여비를 연수비용에 보냈다.

두 의원을 포함한 부의장 등 3명이 지난달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시의회 견학을 갔다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한 명 당 23만9000원씩, 모두 71만 9000원의 출장비를 타냈다. 하지만, 부의장은 자신이 서울시의회 견학 출장자 명단에 올랐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여비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해당 의장과 의원은 담당 직원이 한 일이라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 해외연수비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와 의회는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이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낙마해 보궐선거를 치르고,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광성 외유 등에 따라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의장 등이 ‘출장강’을 통해 해외 연수를 하러다 꾸며 타낸 여비를 연수비용에 보냈다.

이젠 주민의 힘으로 소환제 등을 통해 할량 미달의 의원들을 지방정기에서 퇴출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뿌리째 썩게 되고, 그 피해는 지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無 等 鼓

‘웃기고 자빠졌네.’ 지난해말 개그우먼 김미화가 펴낸 에세이 제목이다. 책에서 그녀는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하차해야만 했던 사연, KBS 블랙 리스트 사건 등 힘들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특유의 유머를 잃지 않아 시종일관 유쾌하다. 다소 우스꽝스럽게도 보이는 책 제목은 그녀가 미리 저어 놓은 묘비명 ‘김미화 웃기고 자빠졌네.’에서 가져왔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코미디언을 꿈꾸었고, 죽어서도 코미디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평생 남을 웃기다 말 그대로 ‘자빠져 버린’, 뺏속까지 코미디언이고픈 그녀의 묘비명으로는 이만한 것이 없다 싶어 절로 무릎이 처졌다.

묘비명 중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많다.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의 ‘우물쭈물하다 내 이빨을 알았다.’는 누구냐 한변쯤 들어봤을 묘비명이다.

세상에 돌도 없는 자유인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은 어떤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묘비명으로도 으뜸이다. ‘갈레 스님’으로 유명한 중광 스님의 ‘괜히 왔다 갔다’도 많이 언급되는 묘비명 중 하나다.

최근에는 유언장이나 묘비명을 미리 써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셀 투르니에가 미려 써 둔 묘비명은 ‘내 그대를 찬양했더니 그대는 그보다 백 배나 많은 것을 내게 갚아 주었도다. 고맙다, 나의 인생이여’라고 한다. ‘쇼생크 탈출’로 유명한 소설가 스티븐 이단한 것이 없다 싶어 절로 무릎이 처고 애썼다.’는 묘비명을 작성해두었다.

묘비명은 삶이 끝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의 ‘우물쭈물하다 내 이빨을 알았다.’는 누구냐 한변쯤 들어봤을 묘비명이다.

세상에 돌도 없는 자유인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洙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문화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